

첨부서류

2016 언론에 비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목 차 (일자순)

no	일자	언론사	제목
01	2015-01-07	한겨레	슈퍼맨' '오마베', 영유아 사교육 부추긴다
02	2016-01-12	베리스타알파	기사형 광고 비판 <사교육홍보 여전한 '조중동'교육섹션>
03	2016-01-12	아주경제	영재학교 선행과목 재학생 사교육유발 분석
04	2016-01-13	한국일보	울산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논란'
05	2016-01-14	경향신문	5년간 서울과학고 5명 중 1명 의대 진학...과학고, 영재학교 취지 살리려면?
06	2016-01-19	평화방송라디오	[인터뷰] 구본창 "자유학기제 도농간, 소득간 학력격차 줄이는 방안 필요해"
07	2016-02-08	YTN TV	'시험'은 없지만 걱정은 '사교육'
08	2016-02-11	중앙일보	'김△△ 서울대 합격' '특목고 00명 합격' 소외감 주는 현수막 언제까지...
09	2016-02-11	EBS 뉴스	학원인지 독서실인지.. '명품 독서실' 꿈수 영업
10	2016-02-15	KBS NEWS	'합격' 현수막 논란... "학벌주의" vs "동기 부여"
11	2016-02-16	세계일보	[김현주의 일상 특특] 탈스펙 채용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니?"
12	2016-02-24	아주경제	교육부 올해 계획에 사교육 절감·고입·대입 개선방안 빠져"
13	2016-02-25	동아일보	영재교육 받으려고 학원원... 사교육 유발하는 영재교육원
14	2016-02-26	머니투데이	작년 1인당 사교육비,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
15	2016-02-26	한겨레	사교육비에 허리 휘는데 비용 줄었다는 교육부의 '마술'
16	2016-02-26	경향신문	월 24만4000원...사교육비, 박근혜 정부 3년째 늘어
17	2016-03-02	주간동아	초교 4학년이면 늦다?!
18	2016-03-02	주간동아	빛으로 고액과외 취업시장 왜곡
19	2016-03-03	시사저널	사교육, 가정파괴범이 되다
20	2016-03-05	내일신문	[통계로 보는 사교육비]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
21	2016-03-09	소년한국일보	사립초등 '편법 영어 교육'... 교육 당국은 '뒷짐'
22	2016-03-21	연합뉴스	실명 공개하며 강제추방...학원이 학생인권 침해 도 넘어
23	2016-03-21	한겨레	개인정보 노출·공포심 조장...학원들 도넬름 '나쁜 광고'
24	2016-03-21	동아일보	[단독]교육부, 대입 결과도 안보고 280억 평평
25	2016-03-25	충청투데이	수행평가 확대 '찬반 논란' 가열
26	2016-03-25	오마이뉴스	'수포자'를 막는 가장 강력한 공부법
27	2016-03-29	국민일보	사교육걱정, "선행교육규제법 무용지물, 10개지역 선행광고 113건 적발"
28	2016-03-30	충북일보	시험대신 수행평가 '갑론을박'
29	2016-04-01	시사인	우리가 속아온 뇌과학의 신화
30	2016-04-05	경향신문	[정리뉴스]서울 자사고 1단계 전형 자소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31	2016-04-06	EBS뉴스	[총선 공약 점검] 20대 총선에 바란다 - 공교육 정상화
32	2016-04-06	KBS뉴스	[청년리포트] @ "말만 청년, 청년 하지말고 기부터 살려주세요"
33	2016-04-08	한겨레	무늬만 학생부종합전형 걸러내야(
34	2016-04-20	한겨레	"'학종' 개선 또는 축소해야 한다" 커지는 목소리
35	2016-04-21	동아일보	취업-입시 때 대학간판 없애 사교육 막자
36	2016-04-22	SBS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 능력에 달렸다?
37	2016-04-28	연합뉴스	"학생부 전형으로 교육 양극화·사교육 심화...개선 시급"(종합)
38	2016-04-28	한겨레	학생부 평가서 비교과 4개 제외해야
39	2016-04-29	서울신문	"동아리·봉사...학교가 더 피곤해져" 고2의 한숨
40	2016-04-29	중앙일보	학생부종합전형 뜨자, 사교육업체 "고교 교사 모셔라"
41	2016-04-29	EBS뉴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논란도 '계속'

42	2016-04-29	SBS뉴스	사교육 부채질하는 소논문...'대학도 공범' 지적
43	2016-04-30	동아일보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사교육 부채질
44	2016-05-01	연합뉴스	학생부 전형 늘자 고교·학원 과도한 '스펙 경쟁'...부작용 속출
45	2016-05-08	한겨레	교사 "학종 전엔 책도 못읽혀" 학부모 "아무리 애써도 기회 안와"
46	2016-05-09	한겨레	[왜나면] '학벌 타파' 시효, 끝나지 않았다 / 송인수
47	2016-05-10	조선일보	"자유학기제는 선행학습 기회" 사교육 부추긴 학원 28곳 적발
48	2016-05-20	뉴스1	사교육걱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거리서명
49	2016-05-24	연합뉴스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조정되나
50	2016-05-26	국민일보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안된다
51	2016-06-06	경향신문	학생·학부모 사교육 걱정 여전히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한 교육부
52	2016-06-06	한겨레	어른은 주40시간 일하겠다면 학생은 주80시간 공부하랴?
53	2016-06-07	뉴스1	출신학교로 차별한 로스쿨 특별감사 하라
54	2016-06-07	한겨레	로스쿨 학벌 카스트제' 일파만파 "한양대, 입학전형 정보공개 하라
55	2016-06-08	오마이뉴스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괴물, 왜 못보나
56	2016-06-10	오마이뉴스	김상봉 교수 "학벌 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7	2016-06-14	아주경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80% 유사...양극화에 세금 낭비
58	2016-06-14	연합뉴스	시민단체 "대학 재정지원 수도권 편중...지방대 몰락 초래"(종합)
59	2016-06-14	경향신문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왜 같은 대학이 계속 선정될까..."평가지표가 같아서"
60	2016-06-23	한국대학신문	시간강사를 위한 대학 정책이 없다
61	2016-06-22	경향신문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수학·과학 34% 교육과정 벗어나
62	2016-06-22	한겨레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종... 수학 문제 60%가 대학과정
63	2016-06-27	교수신문	정부 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에 도움 안돼" 70.4%
64	2016-06-27	국민일보	있는 집 애들만... 한국 수학 양극화 OECD 최악수준
65	2016-06-29	주간동아	'학종'이라면 "불법이라도 좋다"
66	2016-06-29	경향신문	'저소득층' 학생 위한 선행학습을 특목고까지 이용?...'공교육정상화법' 논란
67	2016-06-29	전자신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웃어라, 수포자!' 발간
68	2016-06-29	연합뉴스	서울 유아영어학원 하루 5시간 교습...비용 연 1천만원"
69	2016-06-30	경향신문	'솔로몬반, 면학관...' 성적 따라 자습실도 따로 쓰나요?
70	2016-07-04	머니투데이	월 200만원 넘는 영어유치원, 단속 못하는 이유는...
71	2016-07-05	오마이뉴스	최저임금 1만 원과 야자 폐지, 무슨 관계냐고?
72	2016-07-05	한국일보	10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고교 과정 벗어나 출제
73	2016-07-15	한국대학신문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되면 사회적 합의 필요
74	2016-07-18	뉴스토마토	더민주 "출신학교차별금지법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여야"
75	2016-07-19	뉴스1	"수포자 없애자" '수학 대안교과서' 개발착수
76	2016-08-07	연합뉴스	교육계 "이대 사태 계기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재점검 해봐야"
77	2016-08-11	뉴스1	'학종' 대비 교내 경시대회, 강남·전북 격차 8.7배
78	2016-08-17	부산일보	학생부종합전형 늘수록 불공정성 우려도 확산
79	2016-08-19	대학저널	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제동
80	2016-08-21	중도일보	현정부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질만 하락
81	2016-08-23	연합뉴스	새 초등 1~2 수학교과서, 페이지 줄어 더 어려워져
82	2016-08-23	경향신문	더 어려워진 초등 1·2 수학
83	2016-08-23	한겨레	국어 시간에 한글 자음 배우는데, 수학 시간엔 문장쓰기?
84	2016-08-24	베이비뉴스	유아대상 영어학원 불법 교습행위 실태 심각

한겨레

“슈퍼맨' '오마베', 영유아 사교육 부추긴다”

시민단체, 방송 분석 결과 비판

“영유아 발달에도 적합지 않아

엄격히 제재할 법규정 마련해야”

지상파 육아 예능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사교육을 홍보·조장하고 있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런 홍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육아·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영유아 사교육 유발 요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오감 발달 교재·교구, 한글 습득을 위한 학습지, 원어민 교사의 영어 수업, 각종 예체능 수업 등 영유아 사교육 유형 대부분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최근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최현주 사교육걱정 연구원이 <슈퍼맨이 돌아왔다>(KBS)의 2015년 1~11월 48회분을 분석한 결과, 약 73%인 35회에서 유료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인지발달 위주의 사교육 제품·프로그램 홍보라고 최 연구원은 분석했다. 사교육걱정은 “예를 들면 26개월 유아가 학습지로 한글 학습을 하는 모습 등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 기사형 광고 비판 <사교육홍보 여전한 '조중동' 교육섹션>
2016-01-12 베리스타알파

교육뉴스 스페셜 | 사교육홍보 여전한 '조중동' 교육섹션.. 학기중 심해져
기사형 광고 비중.. 조선 40.9%, 동아 37.1%, 중앙 21.7%순
김경 기자 | inca@veritas-a.com

내신대비부터 경시대회 준비까지...
합리적 비용으로 수준높은 학습을



합리적 비용 학습지원 프로그램 '하늘교육 예유물'

학부모님! 자녀의 학습 지원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교육관계를 통해 올바른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교육 예유물 프로그램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합리'입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란 '합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기사형 광고의 예시로 든 조선일보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 하늘교육 예유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광고지만 기사로 둔갑, 독자 판단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의하면, 기사형 광고에는 기획/해설 기사가 17건(37.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터뷰기사가 16건(35.6%)로 뒤를 이었다. 사실전달 기사는 7건(15.6%), 칼럼 기사는 5건(11.1%)에 불과했다. 조선일보가 20건(기획/해설 7건, 인터뷰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아일보 10건, 중앙일보 3건 순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4년 6월부터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를 꾸준히 분석해오고 있다. 2014년 6~8월의 1차 모니터링 이후 이번 2015년 9~11월이 6차 모니터링이다. 1차 모니터링 당시 4개 언론사 교육섹션 기사의 29.9%가 기사형 광고로, 기사 3개 중 1개 가량이 사교육업체 중심의 광고였다. 기사형 광고는 2차(2014년 9~11월)엔 25.0%로 줄었다가 3차(2014년 12월~2015년 2월)에 39.5%로 급증한 이후, 4차(2015년 3~5월) 23.4%, 5차(6~8월) 22.1%의 감소추세였다. 이번 6차(9~11월)에선 방향특수가 아님에도 25.7%로 다시 늘어, 기사형 광고의 66.7%를 차지하는 사교육업체 광고 중심으로 3대 신문사의 공신력을 바탕, 기사로 둔갑한 사교육광고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핸드폰 기본료 0원 마지막 기회 신청하기

아주경제

“영재학교 선행과목 재학생 사교육 유발...일반종 합대학 진학 후 인정도 못 받아”

👍 0

구분	필수과목	소개	기본선택	심화선택	소개
수학	수학 I (4) 수학 II (4) 미적분학입문(4) 미적분학 I (3) 확률과통계(3)	18	미적분학 II (3) 선형대수학(3)	미분방정식(3) 정수론(3) 수학세미나 I (2) 수학세미나 II (2)	
과학	기초물리학 I (3) 기초물리학 II (3) 기초화학 I (3) 기초화학 II (3) 기초생물학 I (3) 기초생물학 II (3) 기초지구과학 I (3) 기초지구과학 II (3)	24	일반물리학 I (3) 일반물리학실험 I (1) 일반물리학 II (3) 일반물리학실험 II (1) 일반화학 I (3) 일반화학실험 I (1) 일반화학 II (3) 일반화학실험 II (1) 일반생물학 I (3) 일반생물학실험 I (1) 일반생물학 II (3) 일반생물학실험 II (1) 환경학개론(2) 천문학(3) 관측천문학(3) 지구물질과학(3) 야외지질학및실습(2) 대기과학(3) 대기과학실험(1) 해양환경의이해(3)	고급물리학 I (3) 고급물리학 II (3) 물리학세미나 I (2) 물리학세미나 II (2) 고급화학 I (3) 고급화학 II (3) 화학세미나 I (2) 화학세미나 II (2) 고급생물학 I (3) 고급생물학 II (3) 생물학세미나 I (2) 생물학세미나 II (2) 우주론(3) 지구과학세미나 I (2) 지구과학세미나 II (2)	33
정보 과학	정보과학 I (2) 정보과학 II (2)	4	컴퓨터프로그래밍(3) 이산구조(3) 알고리즘(3) 정보과학프로젝트 I (3) 객체지향프로그래밍(3)	고급정보과학(3) 정보과학세미나(2) 정보과학프로젝트 II (3)	

경기과학고 전문과목 교육과정 과목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재학교의 AP 등 전문과목의 대학 선행 정도는 기초교양과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하며 현재 편성된 전문과목 중 대학 2~4학년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삭제하고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심도 있고 폭넓게 운영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울산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논란'
2016-01-13 한국일보

한국
일보

Korea Times | 한국스포츠경제

뉴스 스페셜 이슈/기획 오피니언 멀티미디어 지역



울산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논란'

교육부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 자료 공개는 부당”



13일 학부모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교육부는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발표했지만 울산교육청은 기자회견과 교육청사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통학력이상 비율 최고'를 근거로 '울산 중등학생 학력 전국 1위' 성과로 홍보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1일 이 단체가 교육부를 상대로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질의를 한 결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보통이상 학력 비율은 학업성취도 평가 취지(기초미달 학생 비율 감소)에 맞지 않고 일부 사교육업체와 언론에서 이를 악용해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5년간 서울과학고 5명 중 1명 의대 진학...과학고, 영재학교 취지 살리려면?
2016-01-14 경향신문

≡ 전체

경향신문

5년간 서울과학고 5명 중 1명 의대 진학...과학고, 영재학교 취...

입력 : 2016.01.14 16:11:57 | 수정 : 2016.01.15 14:20:52

8. 유의 사항

- 가. 본교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영재학교로 의·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나 본교 교육과정 운영상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합격예정자 중 학년말에 학교생활기록부II를 제출받아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며 2학기 교육과정을 매우 불성실하게 이수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016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사교육걱정 제공

사교육걱정이 2013년과 2015년 수도권 지역의 고1 학생 2769명, 205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월평균 30~50만원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과학고 및 영재학교, 외고, 자사고 등은 500~100만원대의 사교육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한 비율을 정리하면 일반고 학생이 30.6%인 반면 과학고/영재학교는 76.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에는 69.4%였지만 2015년에는 6.7%포인트 증가했다. 김 위원은 "최근 과학고, 영재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들 사이에서 고액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구본창 "자유학기제 도농간, 소득간 학력격차 줄이는 방안 필요해"
2016-01-19 평화방송라디오

사회

[인터뷰] 구본창 "자유학기제 도농간, 소득간 학력격차 줄이는 방안 필요해"

Home > 뉴스 > 사회

폰트 + -    기사보내기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운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자유학기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해"

▶'시험'은 없다지만 걱정은 '사교육'
2016-02-08 YTN TV

뉴스 홈 > 사회

450 | Posted : 2016-02-08 00:12

'시험'은 없다지만 걱정은 '사교육'



▶[천인성기자의 교육카페] '김△△ 서울대 합격' 특목고 00명 합격' 소외감 주는 현수막 언제까지...
2016-02-11 중앙일보

J 중앙일보

[천인성 기자의 교육카페] '김△△ 서울대 합격' 특목고 00명 합격

 천인성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이색적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진행하는 '나쁜 현수막(플래카드) 찾기'입니다.

시민이 '나쁜 현수막'이 붙은 학교·학원의 담벼락·복도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단체가 이를 교육청에 알려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꼽은 나쁜 현수막은 학교·학원의 입시 실적 홍보물입니다. 명문대·특목고에 진학한 학생 이름, 출신 학교, 사진 등을 담은 것을 말하죠.

▶ 학원인지 독서실인지.. '명품 독서실' 꿈수 영업
2016-02-11 EBS 뉴스



▶ '합격' 현수막 논란... "학벌주의" vs "동기 부여"
2016-02-15 KB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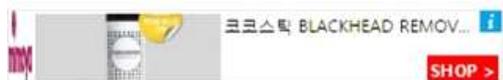
▶[김현주의 일상 특특] 탈스펙 채용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니?"
2016-02-16 세계일보



한편, 일부 공기업의 채용전형이 지나친 스펙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기업 30곳 등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대부분이 학력 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지나치게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었다.

▶교육부 올해 계획에 사교육 절감·고입·대입 개선방안 빠져"
2016-02-24 아주경제



아주경제

“교육부 올해 계획에 사교육 절감·고입·대입 개선 방안 빠져”

0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도 2018년이나 시행을 한다는 계획은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정부 여당의 중선 공약으로 최근 새누리당이 5년 내 사교육비 50% 절감 방안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업무 영역에서는 누락돼 교육의 영역에서 최대 민생 영역이 누락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고고입시 전형 제도가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전국단위 자율고-중점학교-일반고 등 순서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비공정한 전형으로 고교 간 서열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해 공정한 입시전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대학 입시 제도가 여전히 눈물전형, 특기자 전형의 존치로 기형적인 대입제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부 전형 등도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커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수시 확대가 특권 학교를 비밀스럽게 우대하는 전형으로 악용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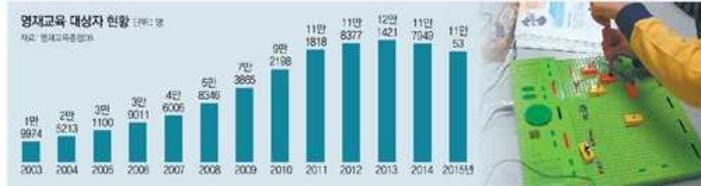
▶ 영재교육 받으려고 학원行... 사교육 유발하는 영재교육원
2016-02-25 동아일보

dongA.com 뉴스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스튜디오 동아오토 부동산 VODA

영재교육 받으려고 학원行... 사교육 유발하는 영재교육원

유덕영기자 | 입력 2016-02-25 03:00:00 | 수정 2016-02-25 16:01:42

넘쳐나는 영재교육 실태 진단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출제 문제를 분석한 결과 선행학습을 하거나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1인당 사교육비,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
2016-02-26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작년 1인당 사교육비,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현 정부 들어 3년째 증가"... "교육부, 사교육 미참여 학생까지 계산에 포함" 비판

머니투데이 이머호 기자 | 입력: 2016.02.26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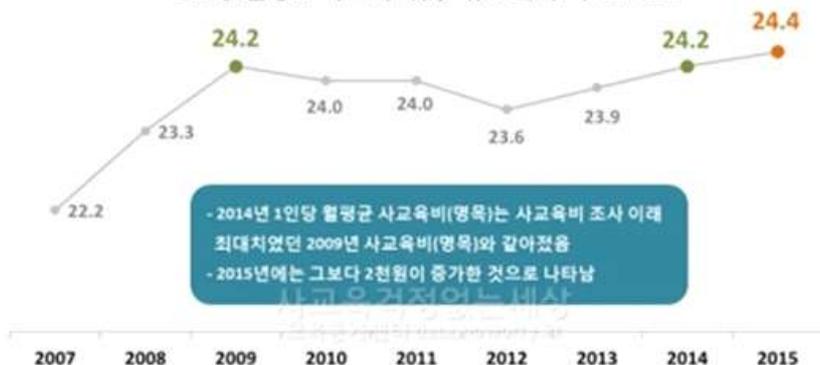
기사

소셜댓글(0)

기사공유

가 +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명목)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2014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명목)는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 사교육비(명목)와 같아졌음
- 2015년에는 그보다 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교육부 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5), 본 단체 교육통계센터 재구성

▶ 사교육비에 허리 휘는데 비용 줄었다는 교육부의 '마술'
2016-02-26 한겨레

한겨레

사교육비에 허리 휘는데 비용 줄었다는 교육부의 '마술'

등록 : 2016-02-26 08:20 수정



사회 많이 보는 기사

1. [단독] '비선 실세' 정은희 씨 횡성 땅 6300여평 매입
2. [한겨레 프리즘] 국공합작 이라고? / 이춘재
3. 고 김관홍 잠수사 기억하는 '꽃다발 책 묶음'
4. 강도살인 무기수 "공범 있다" 검찰에 옥중편지
5. "왜 주차 못하게 해"...관리소 회장

이시각 관심정보

- 대한민국 하루 38명 자살, 알고보니
- 로또 1등번호 "이미 정해져.." 리스
- 치아교정 가격, 부담없이 무이자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센터가 교육부·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해보니,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가운데, 영어는 8만2000원에서 8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원 줄었고, 수학은 7만6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1000원 늘었다.

특히 학교급 가운데 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장 큰 폭인 6000원(23만원 →23만6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4000원(9만3000원 →9만7000원)을 차지한다. 2018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오히려 수학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반영하고,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 범위 등으로 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크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 월 24만4000원...사교육비, 박근혜 정부 3년째 늘어
2016-02-26 경향신문

월 24만4000원...사교육비, 박근혜 정부 3년째 늘어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입력 : 2016.02.26 21:52:50 | 수정 : 2016.02.26 21:56:10

- 초·중·고생 2007년 이후 최고치...미참여 빼면 월 35만5000원
- 교육부 “방과후 선행 제한 완화” 시민단체 “사교육 감소 못 시켜”



자료: 교육청·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5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 초교 4학년이면 늦다?!
2016-03-02 주간동아

커버스토리 | 사교육이 미쳤다

초교 4학년이면 늦다?!

3학년부턴 대입 레이스 시작, 하루 12시간 집중 수학학원 성행, 예체능 경쟁도 살벌

표지일자 2016.03.02 1027호 (p30~34)



댓글 1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학원 셔틀버스들. 동아일보

인터뷰 |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선행해서 대학 가면 다시 의·치대 준비, 안 되면 대치동 강사”

영재학교·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초교 3, 4학년 때부터 경주마처럼 달려온 아이들은 목표 달성 후 그보다 더 치열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의 심각한 사교육 실태를 진단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포럼을 개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내 수학사교육포럼의 최수일 대표(사진)는 그 이유에 대해 “영재학교·과학고의 무리한 대학 과목 선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AP(Advanced Placement·대학과목 선이수제도) 등 심화 선택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고교 교육과정을 초압축적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 과학고도 올해부터 AP를 시행하는데, 그중 서울과학고를 보면 수학 기본 필수 과목이 네 과목(수학 I, 수학 II, 수학 III, 수학 IV)으로, 이는 일반계 고교 수학 교육과정 30단위를 압축해 절반인 15단위로 편성한 것이다. 결국 재학생은 선행학습, 추후학습, 대비학습을 위해 주말마다 기숙사에서 나와 곧장 서울 대치동 학원으로 이동한다.



박해윤 기자

커버스토리 | 사교육이 미쳤다

빛으로 고액과외 취업시장 왜곡

자소서 2장 첨삭 50만 원, 면접지도 시간당 25만 원...'금수저' 물러가며 좋은 직장 독점

표지일자 2016.03.02 1027호 (p36~38)



댓글쓰기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노용운 연구위원은 "NCS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험 형태로 문제를 예시함으로써 취업준비생들이 NCS 기반의 채용을 기존 인·적성 시험의 또 다른 변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능력 기반의 채용이 자리 잡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업과외 받으려 대출, 아르바이트...

▶ 사교육, 가정파괴범이 되다
2016-03-03 시사저널

사교육, 가정파괴범이 되다

치솟는 사교육비 '에듀푸어' 양산... "공교육 제 역할 못하기 때문"

좋아요 2,715

트윗

송웅철 기자 | sec@sisapress.com | 승인 2016.03.03(목) 18:07:56 | 1377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 밀집 지역 © 시사저널 고성준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사교육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만 기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풍토 개선 방안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의 서열 체제 완화 △결과 중심의 대입 전형을 과정 중심으로 재편 △노동시장에서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 척결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책 제안이나 입법 추진 등을 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가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사교육이 활개를 치는 건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로 보는 사교육비]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
2016-03-05 내일신문



[통계로 보는 사교육비]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

서울, 경기, 인천지역 교고 1학년생 2051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를 물어본 결과, 일반고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44.6%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을 살펴보면 전국단위 자사고(59.2%), 과학고/영재학교(45.1%), 광역단위 자사고(45.0%), 외국어고/국제고(40.4%) 순이었다. 이중 외고와 국제고는 내신 반영 교과목을 영어로 한정한 이후 사교육비 지출 경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 공동자료 2015년 9월)

▶사립초등 '편법 영어 교육'... 교육 당국은 '뒷짐'
2016-03-09 소년한국일보

사립초등 '편법 영어 교육'... 교육 당국은 '뒷짐'

문일요 기자 moon5w1h@snhk.co.kr

"머차피 막지도 못할 텐데."

최근 초등학교 영어 몰입 교육을 금지한 교육부의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나온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몰입 교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올해도 편법 영어 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1~2학년의 정규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 교육을 일정한 시수(각 교과목에 규정된 시간 단위)로 제한한 교육부의 고시가 내려진 건 지난 2012년. 이후 4년이 지났지만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올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새학기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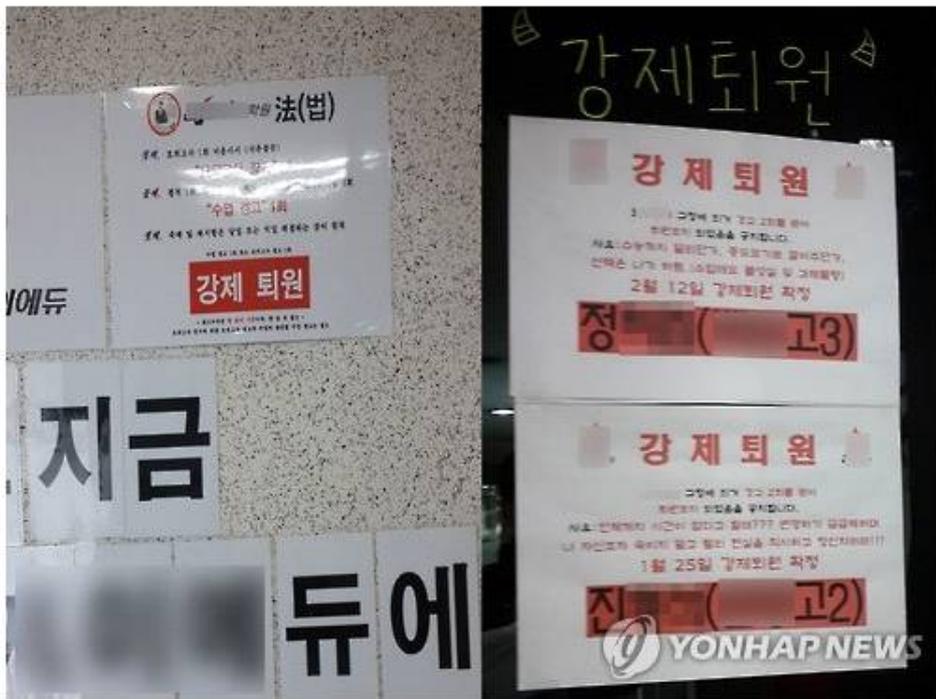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서울 지역 사립초들의 2016년학년도 신입생 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A사립초는 교육비 항목에 영어 방과 후 수업 비용을 포함시켜서 안내했다. 사실상 의무적인 방과후 영어 수업을 진행해 정규 교과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B사립초 역시 영어 교육은 '전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영어학교'로 운영된다고 안내했다. 학교 관계자는 "잘못된 자료이며 내년부터 수정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학부모들은 그냥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실명 공개하며 강제추방...학원가 학생인권 침해 도 넘어
2016-03-21 연합뉴스

실명 공개하며 강제추방...학원가 학생인권 침해 도 넘어

송고시간 | 2016/03/21 11:41



실명 공개하며 강제 추방...학원가 학생인권 침해 도 넘어

(서울=연합뉴스) 경기도 평촌의 한 학원이 강제로 퇴원시킨 학생의 신상정보와 퇴원 사유를 공개한 게시물을 학원 벽면에 붙였다. 2016.3.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yonglae@yna.co.kr

시민단체 "해당학원에 게시물 철거요구...학원법에 처벌조항 마련해야"

▶개인정보 노출·공포심 조장...학원들 도넬은 '나쁜 광고'
2016-03-21 한겨레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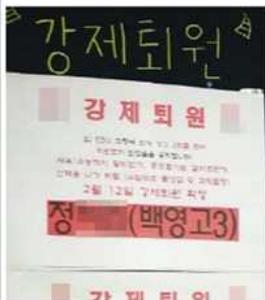
개인정보 노출·공포심 조장...학원들 도넬은 '나쁜 광고'

등록 : 2016-03-21 20:07 수정 :

f t ↻ ★ ☰

+ -

일상 공개하며 강제퇴원



실명·사유 공개해 조롱



학교성적표 그대로 게시



학생인권침해 심각

'사교육걱정' 전국 10개 지역 조사

사회 많이 보는 기사

1. [단독] '비선 실세' 경운회 씨 횡성 땅 6300여평 매입
2. [한겨레 프리즘] 국공합작 이라고?
3. 밤심으로 된다, 우리 도시 공무원
4. 고 김관홍 잠수사 기억하는 '꽃다발 책 묶음'
5. 강도살인 무기수 "공범 있다" 검찰에 옥중편지

▶[단독]교육부, 대입 결과도 안보고 280억 평평
2016-03-21 동아일보

[단독]교육부, 대입 결과도 안보고 280억 평평

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에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15개大 지원

동아일보 | 입력 2016.03.21, 03:02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7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은 어학특기자나 논술 등 특목고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고교 교육의 취지에 역행하는 대입 전형은 여전히 높은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 대학들의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본래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 기준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수행평가 확대 '찬반 논란' 가열
2016-03-25 충청투데이

수행평가 확대 '찬반 논란' 가열

시민단체 찬성·교총 반대 주장, 학생평가 개정안에 의견분분

홍서은 기자 classic@cctoday.co.kr 2016년 03월 25일 금요일 제7면 승인시간 : 2016년 03월 24일 19시 35분

먼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성명을 내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지필평가에서 수행평가 중심의 전환은 학교평가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을 주는 등 바람직한 학교 평가의 개선조건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게 단체 측의 주장이다.

▶'수포자'를 막는 가장 강력한 공부법 2016-03-25 오마이뉴스

12,738명

10만인클럽회원

OhmyNews 모든 시민은 기자다

'수포자'를 막는 가장 강력한 공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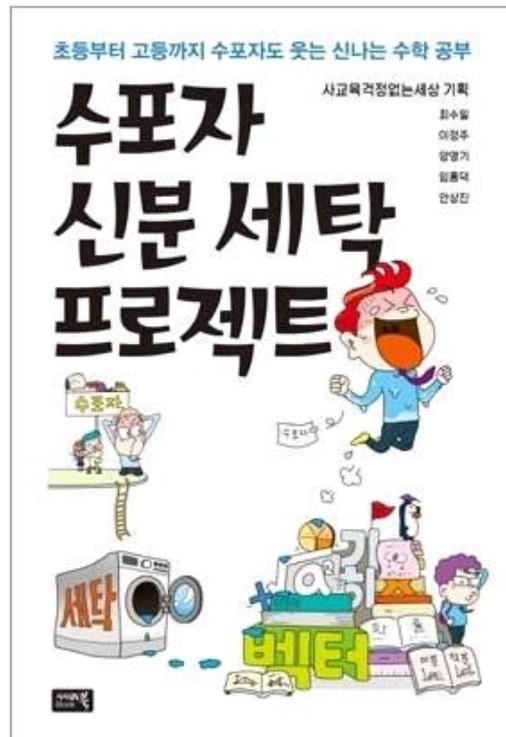
[서평] 신나는 수학 공부를 위한 <수포자 신분 세탁 프로젝트>

16.03.25 10:13 | 최종 업데이트 16.03.25 10:13 | 글: 강서희(heeging) | 편집: 최은경(nuni78)

수포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수포자 신분세탁 프로젝트>는 수포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초·중·고 전반에 걸쳐 수학교습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수포자 없는 입시플랜>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열린 6회 연속 학부모 수학 강좌 <수포자도 웃는 신나는 수학>을 묶은 책이다.

수학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수학 사교육시장에 어마한 자본을 투입하고, 아이들은 학원에 시달린다. 그런데 정말 시키면 잘하는 것이 수학일까? 정답은 아니다.



▲ 수포자 신분 세탁 프로젝트

© 시사IN북

관련사진보기

▶사교육걱정, "선행교육규제법 무용지물, 10개지역 선행광고 113건 적발"
2016-03-29 국민일보

KPLUS
국민일보의 초판 PDF서비스

국민일보
www.kmib.co.kr

시사 > 전체기사

사교육걱정, "선행교육규제법 무용지물, 10개지역 선행광고 113건 적발"

입력 : 2016-03-29 11:18

2016 지역별 선행광고 현황 (단위: 개)

지역	적발 건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28
서울 노원구 중계동	8
서울 양천구 목동	9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8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동	6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4
경기 고양 일산동구 풍동	10
광주 남구 동산동	15
대전 서구 둔산동	14
부산 해운대구 화동	11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10개 지역 사교육 업체 선행교육 광고 실태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113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3개 지역(대치동, 중계동, 목동), 경기 4개 지역(분당 수내동, 안양 평촌, 수원 영통, 일산동구 풍동), 광주·대전·부산광역시 중 10개 지역이었다.

▶시험대신 수행평가 '갑론을박'
2016-03-30 충북일보

시험대신 수행평가 '갑론을박'

교사들 반대, 시민단체는 찬성



김병학 기자 kbh7798@naver.com

웹출고시간 2016.03.30

최종수정 2016.03.30

그러나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만으로도 성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수업평가의 개선은 곧 수업의 개선과 연결될 것이며, 고교에서도 수행평가가 도입되면 학생의 질적 평가가 가능해지므로 현재의 비교과 스펙 중심 학생부 전형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속아온 뇌과학의 신화
2016-04-01 시사인



우리가 속아온 뇌과학의 신화

뇌과학의 눈부신 발달 이후 몇몇 나라에서는 과학에 기반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엔 아직도 뇌에 관한 엉터리 선전이 나돈다.

신성욱 (과학 저널리스트) webmaster@sisain.co.kr | 2016년 04월 01일 금요일 제445호



▶[정리뉴스]서울 자사고 1단계 전형 자소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04-05 경향신문

[정리뉴스]서울 자사고 1단계 전형 자소서 폐지, 어떻게 생각하 세요?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입력 2016-04-05 16:20:23

[그림1] 자사고 자기소개서 단기특강 학원 안내

◆◆2016학년 특목/자사고 대비 원서-면접 과정 안내◆◆

■ 외국어고 및 국제고

▲ 접수기간 : 1차(재원생) - 7.10(금)-17(금) / 2차 - (재원생+외부생) - 수시접수

▲ 진행개요

- 원서 작성 및 1:1 첨삭지도(내신기간에는 작성하지 않음)

- 모의면접실시(1:1 면접 + 실전대비그룹면접)

▲ 오리엔테이션 : 1차-7.18(토), 오후 6:30~, 한국유도원 5층 / 2차-개별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

■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 외대부고, 상산고, 하나고, 인천하늘고, 천안북일고등

▲ 접수기간 : 1차(재원생) - 7.10(금)-17(금) / 2차 - (재원생+외부생) - 수시접수

▲ 진행개요

- 상산고:정규수업12회+전문가실전면접4회(실전집단토론면접2회포함) 총16회

- 용인외대부고:정규수업14회+전문가실전면접4회 총18회

- 하나고:정규수업18회+전문가실전면접4회 총22회

※ 자기소개서는 담당강사와 개별메일로 수시첨삭, 2회차 이후 수업은 면접대비집중수업

※ 신청 접수 후, 7.20-25일 기간 동안 학교별 반배정이 이루어지고, 7월 29일부터 수업진행

▲ 오리엔테이션 : 1차-7.18(토), 오후 6:30~, 한국유도원 5층 / 2차-개별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

■ 지역단위 모집 자사고 : 보인고, 한대부고, 중동고, 휘문고등

▲ 접수기간 : 8.10(월)-21(금), 재원생만 접수 가능합니다.

▲ 진행개요

- 원서 작성 및 1:1 첨삭지도, 모의면접실시

▲ 오리엔테이션 : 8.22(토), 오후 6:30~, 별관 지하1층

■ 상담 및 접수처 : 송파분원 ☎ 02-401-1074 / 광진분원 ☎ 02-457-646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성명을 내고 "자사고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를 이
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1단계 추첨 전형에서 떨어질 학생을 포함한 모
든 학생에게 자소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학교 3학년 교실은 2학기 내내 원서 작성과의 전쟁"이라며 "자사고·특성
학교·특목고·영재학교까지 고교 입시로 중학교 3학년 교실은 파행이 비일비재한
데 불필요한 자사고 자소서 작성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총선 공약 점검] 20대 총선에 바란다 - 공교육 정상화
2016-04-06 EBS뉴스



▶[청년리포트] @ “말만 청년, 청년 하지 말고 기부터 살려주세요”
2016-04-06 KBS뉴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대기업 22곳, 공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22개 민간 대기업 중 20개사(90.9%)가 대졸(예정)자로 학력을 제한해 채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2곳도 공고상 학력 제한은 없지만 입사 지원서에 학력 가입란을 뒤 사실상 학력 제한을 두고 있다.

▶ 무늬만 학생부종합전형 걸러내야
2016-04-08 한겨레

한겨레

“무늬만 학생부종합전형 걸러내야”

‘사교육걱정’, 입시토론회서 지적

고난도 면접·교외 스펙 요구 등

서울대·고려대·서강대 ‘꼼수’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종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종을 늘리도록 권장하면서 일부 대학이 학종의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 전형’을 학종으로 눈속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학종’ 개선 또는 축소해야 한다” 커지는 목소리
2016-04-20 한겨레

한겨레

“‘학종’ 개선 또는 축소해야 한다” 커지는 목소리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방안 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과 위주로
서술하는 ‘학생부 심층전형’ 도입을”
더민주 “당장 올해부터 고치자”
국민의당 “20%미만으로 축소해야”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취업-입시 때 대학간판 없애 사교육 막자
2016-04-21 동아일보

dongA.com 뉴스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스튜디오 동아오토 부동산

“취업-입시 때 대학간판 없애 사교육 막자”

이은택 기자 | 입력 2016-04-21 03:00:00 | 수정 2016-04-21 04:13:08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나서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나섰다. 뿌리 깊은 '학력 줄 세우기' 문화와 그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부담의 근본 원인은 교육이 아니라 채용시장과 대학 체제 같은 사회 문제”라며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문제는 모든 학부모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 능력에 달렸다?
2016-04-22 SBS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 능력에 달렸다?

10,497

입력 : 2016.04.22 11:19 | 수정 : 2016.04.22 13:45

1 2



* 대담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학생부 전형으로 교육 양극화·사교육 심화...개선 시급"(종합)
2016-04-28 연합뉴스



"학생부 전형으로 교육 양극화·사교육 심화...개선 시급" (종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부 대학들, 학생부종합전형 취지에 역행"
"동아리·독서활동 등 비교과 경쟁 내몰려...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시민단체가 대학입시에서 날로 비중이 커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 고사를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학생부 평가서 비교과 4개 제외해야
2016-04-28 한겨레

한겨레

“학생부 평가서 비교과 4개 제외해야”

사교육걱정 '학종' 개선책

“부모 배경따라 큰 격차나”

구본창 정책2국장은 “수없이 많은 비교과 활동으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걸 기획·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일까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교육과정이나 수업 개선에 투자해야 하는 에너지와 역량이 비교과 활동에 소진되는 상태로는 학종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밖에 사교육걱정은 △서울 주요 대학이 학생부 외에 엄격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거나 구술 면접을 실시하는 ‘가짜 학종’이 학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교사추천서를 폐지해 학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 “동아리·봉사...학교가 더 피곤해져” 고2의 한숨
2016-04-29 서울신문

서울신문 사회

교육

“동아리·봉사...학교가 더 피곤해져” 고2의 한숨

2018학년도 대입 ‘학생부만으로 23.7% 선발’ 한다는데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생부종합전형 뜨자, 사교육업체 “고교 교사 모셔라”
2016-04-29 중앙일보

1 중앙일보

사회

검찰·법원 교육 사건사고 복지노동 지역 건강

학생부종합전형 뜨자, 사교육업체 “고교 교사 모셔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과활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동아리·봉사활동·경시대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교내 수상 실적과 인증 자격시험,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등 4개 영역은 입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논란도 '계속'
2016-04-29 EBS뉴스



▶사교육 부채질하는 소논문...'대학도 공범' 지적
2016-04-29 SBS뉴스

SBS 뉴스
뉴스 프로그램 취재파일 비디오머그 이슈 + 뉴스플러스 SBS 8 뉴스 스포츠뉴스

사교육 부채질하는 소논문...'대학도 공범' 지적

김정윤 기자 ✉ 1,321

입력 : 2016.04.29 21:17 | 수정 : 2016.04.29 22:30

0 0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사교육 부채질
2016-04-30 동아일보

donga.com 뉴스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스튜디오 동아오토 부동산 VODA

최신기사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의학과학 사람속으로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사교육 부채질”

유덕영기자 | 입력 2016-04-30 03:00:00 | 수정 2016-04-30 03:00:00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 전형에 포함된 일부 요소가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교내 경시대회, 각종 인증 자격 등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는 자기소개에서 자격 취득 여부에 대해 작성이 가능한 '경제 이해력 검증시험(TESAT)'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사 인증' 등을 준비하려면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어려워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독서활동도 학생이 지원하려는 대학과 전공에 맞춰 사교육 기관을 통해 관리를 받기도 한다.

▶ 학생부 전형 늘자 고교·학원 과도한 '스펙 경쟁'...부작용 속출
2016-05-01 연합뉴스

2016.08.31 (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강릉 21.8℃

학생부 전형 늘자 고교·학원 과도한 '스펙 경쟁'...부작용 속출

강남 공립고, 수백만원대 연구과제비 학생 부담 논란
일부 학원, 컨설팅 비용으로 수백만원 요구하기도... "교육 양극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대입의 '주류'로 자리 잡은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단 몇 줄의 평가를 넣기 위해 일부 고교와 사교육 업체들이 학생들을 과도한 '스펙' 경쟁에 내몰면서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도 "고교생 R&E는 정부나 대학-고교 연계를 통해 이공계 전공 교수의 지도 아래 소논문 프로젝트를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익자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사교육업계 '극성 마케팅' 수백만원 호가... "학생부전형 대폭 개선 필요"

고교생 R&E 활동은 주로 과학고나 영재학교,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일반계 고교에서 심화학습의 한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스펙'으로 기재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실제로 학원들은 이공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를 '교수'로 포장해 학부모들에게 접근한다. R&E 활동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1인당 수백만 원의 상담비용을 부담시킨 뒤 조잡한 수준의 소논문 프로젝트를 '스펙'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 “학종 전엔 책도 못읽혀” 학부모 “아무리 애써도 기회 안와”
2016-05-08 한겨레

한겨레

교사 “학종 전엔 책도 못읽혀” 학부모 “아무리 애써도 기회 안와”

학생부종합전형 찬반 가열

진로진학정보원 토론회 교사들

“공교육정상화” 긍정평가 쏟아내

이슈청원 사이트 반대서명 2천명

“스트레스 줄이기커녕 애들 목죄”

학종관련 기사에 순식간에 댓글

이에 앞서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두 차례에 걸친 학종 관련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지난 달 28일엔 네 가지 비교과 활동(자율동아리·독서·교내경시대회·자격시험)을 학종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학종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권도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학종에서 소논문 활동 실적 반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관계자는 “학종의 비중을 전체 모집인원의 2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왜냐면] '학벌 타파' 시효, 끝나지 않았다 / 송인수
2016-05-09 한겨레

☰ 한겨레

◀ [왜냐면] '학벌 타파' 시효, 끝나지 않았다 / 송인수

'학벌없는사회'라는 시민단체의 해산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특히 이 단체가 해산하면서 남긴 선언문의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 사회는 학벌사회이고 현재의 입시 경쟁과 교육의 왜곡은 학벌사회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자본의 독점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벌조차 권력을 얻는 실질적 통로가 되지 못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접고 새 운동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나는 심란했다. 4월26일은 <한겨레> 기자가 그 단체 대표에게 해산의 이유를 취재하는 날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단체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을 출범시킨 날이기도 했다. 우리 운동의 취지는 "입시와 채용시장에서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태를 법률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 타파 시도는 여전히 절박하다. 통계청이 2009년부터 매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 이유 중 부동의 1위는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를 중시하는 관행'이다. 이를 부모들의 낡은 생각이라 폄훼할 수도 없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채용 과정 차별 관행 실태조사'에서 시민들은 채용 때 학교 및 학력 차별을 제일 심각한 차별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011~2015)에서도 국민들 93.2%는 대학 졸업장 유무로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86.6%가 학벌 차별 해소 전망이 어둡다고 비판했다.

▶"자유학기제는 선행학습 기회" 사교육 부추긴 학원 28곳 적발
2016-05-10 조선일보

chosun.com 사회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건강

포토·영상

"자유학기제는 선행학습 기회" 사교육 부추긴 학원 28곳 적발

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지역 학원 2만6000여곳 중 시민단체 등에서 신고한 60개 학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올해 초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성 광고를 일삼는 학원들의 행태를 공개했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로)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 '달라진 수능 준비는 초등부터'라는 광고로 사교육을 조장했다.

▶사교육걱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거리서명
2016-05-20 뉴스1

사교육걱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거리서명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온라인에서 진행...학벌주의 실태 풍자 퍼포먼스 등

(서울=뉴스1) 김현걸 기자 | 2016-05-20 17:19:38 였고



학벌차별 실태 퍼포먼스 '대학 점퍼 패션쇼-학벌을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News1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24일부터 7월말까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거리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취업과 상급학교 입시과정에서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의무사항'을 명시한 법이다.

사교육걱정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1차 거리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출신학교로 취업이 결정되는 등 학벌주의 실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 '대학 학과 점퍼 패션쇼-학벌을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를 선보인다.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조정되나
2016-05-24 연합뉴스

2016.08.31 (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강릉 21.8℃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조정되나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시간 규제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학원업계의 끊임없는 시도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마치동 학원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안된다
2016-05-26 국민일보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안된다”



심이있는교육시민포럼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연 인턴기자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밤 10시 이후 심야영업과 휴일 영업을 규제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에 나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서울의 경우 학원 심야영업규제 조례는 분명한 효력을 발휘했는데 이를 오히려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타 지역도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10시로 단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전국이 이를 통일적으로 시행토록 법제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주 1회 자율 선택요일 의무휴무제에 대해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전혀 실효성 없는 제안”이라며 일축했다. 이들은 “학원이 제각각 다른 요일에 휴무를 정할 경우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여기에 '시험기간 전 3주간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학교마다 다른 시험기간을 이유로 학원들이 연중 의무휴무 예외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학생·학부모 사교육 걱정 여전한데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한 교육부
2016-06-06 경향신문

사회

학생·학부모 사교육 걱정 여전한데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한 교육부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그림 1] 2007 ~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사교육 의식조사'의 학생용(좌)과 학부모용(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그림 2] 『사교육비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중 조사항목 변경 사항 설명 내용

□ 2015년 조사항목 변경

○ MDESS 이용자, 자문위원 의견 수렴('15.3.3~3.20. E-mail), 관계부처('15.3.5, 3.9~4.6 나라음정부협업시스템내 기간간 메모보고, 교육부)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조사항목 수정 및 삭제

○ 2015년 사교육비 조사항목 개선

구분	조사항목 수			2015 조사항목 변동사항		
	2014년	2015년	수정	삭제	추가	이동
학부모 사교육비조사	213	196	2	-	4	-11
학부모 의식조사	26	0	-	22	-	-4
학생 의식조사	21	0	-	20	-	-1
검정고시	1	1	-	-	-	-
방과후학교 교사	0	17	-	-	1	+16
계	251	214	2	42	5	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교육 의식조사'의 조사항목이 '사교육비 조사'와 내용이 중복되고, 통계청 '사회조사'와 유사해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 하지만 '사교육 의식조사'는 사교육 참여 이유, 정보 출처 등 사교육 관련 전반적인 분야를 묻는 조사이고, '사교육 조사'는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만 묻기 때문에 각각 목적과 내용이 다른 조사라고 사교육걱정은 주장했다.

▶어른은 주40시간 일하겠다면 학생은 주80시간 공부하랴?
2016-06-06 한겨레

한겨레

“어른은 주40시간 일하겠다면 학생은 주80시간 공부하랴?”



kimyh@hani.co.kr

교육 시민단체들은 법정 공휴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의 영업을 아예 제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씬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아동노동 철폐의 날'(12일)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휴일 휴무제'를 조례로 제정해 법정 공휴일에 학원을 쉬게 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열 계획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법정 공휴일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쉬기로 합의한 날이니만큼 청소년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성인들은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청소년은 주당 70~80시간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헌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도 "대부분 직장인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쉬는데 청소년들은 주말에도 학원에 나가 '공부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이 2014년 전국 초중고 학생 645명 및 학부모 4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요일에 학원에 다닌다'고 답한 학생은 고등학생 중 63%, 중학생 중 44%였다.

▶출신학교로 차별한 로스쿨 특별감사 하라
2016-06-07 뉴스1

"출신학교로 차별한 로스쿨 특별감사 하라"

사교육걱정, 한양대서 기자회견...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요구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6-07 12:24:38 송고

기사보기

네이버의견

좋아요

공유하기

0

트윗

인쇄 | 확대 | 축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정문에서 '로스쿨 출신학교 차별입학 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6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근 서울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출신대학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의혹제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진상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로스쿨 학벌 카스트제' 일파만파 "한양대, 입학전형 정보공개 하라
2016-06-07 한겨레

한겨레

'로스쿨 학벌 카스트제' 일파만파 "한양대, 입학전형 정보공개 하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정문 앞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때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날 오전 한양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신학교 차별은 능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25개 로스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출신학교 차별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송인수 대표는 "최근 커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역시 같은 학생부라도 고교에 따라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며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 활동가들은 스카이(SKY)·의대·치대는 'S등급', 지방대는 'D등급'이라고 적힌 가면을 각각 쓰고 '학벌 등급제'를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괴물, 왜 못보나
2016-06-08 오마이뉴스

12,726명

10만인클럽후원

OhmyNews 모든 시민은 기자다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괴물, 왜 못보나"

공기업 10곳 중 4곳, 채용시 학력-출신학교 정보 여전히 요구

공기업 10곳 중 4곳이 채용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 30곳의 공기업 중 올해 4~5월 공개채용을 실시한 1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거리서명 이틀은 실제로 5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 누리꿈 스퀘어를 비롯하여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거리서명을 시작했다



▲ 한양대 앞 기자회견 로스쿨 등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기자회견

▶ 김상봉 교수 "학벌 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6-06-10 오마이뉴스

12,726명
10만인클럽 후원

OhmyNews 모든 시민은 기자다

김상봉 교수 "학벌 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상봉 전남대 교수 초청 강연회



▲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10일 오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학벌사회는 끝났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80% 유사...양극화에 세금 낭비
2016-06-14 아주경제

아주경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80% 유사... 양극화에 세금 낭비”

2014년 사립대 지원 국고보조금 67.4% 수도권 집중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학계열의 졸업생 수를 늘리는 양적 증가가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라도 적성이 맞는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나라는 양적인 증가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로 인문계열을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리면 적성도 맞지 않는 학생들이 공학계열로 진학해 적성도 맞지 않은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대학별 지원금액과 사업 결과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상세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재정지원 현황 및 효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민단체 "대학 재정지원 수도권 편중...지방대 몰락 초래"(종합)
2016-06-14 연합뉴스



시민단체 "대학 재정지원 수도권 편중...지방대 몰락 초래"(종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결국 지원받는 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이 되는 대학지원사업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방대의 몰락을 초래하는 대학지원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업별 목적이 다른데도 평가지표가 80% 이상 유사해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에도 선정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왜 같은 대학이 계속 선정될까...“평가지표가 같아서”
2016-06-14 경향신문



‘대학공공성 실현 대학생 네트워크 모두의 대학’ 회원들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시간강사를 위한 대학 정책이 없다
2016-06-23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Daily UNN

뉴스
학술·연구

“시간강사를 위한 대학 정책이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구조개혁정책 관련 토론회

최상혁 기자 | csh@unn.net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토론회를 개최해 대학내 시간강사와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했다.(사진=최상혁 기자)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수학·과학 34% 교육과정 벗어나
2016-06-22 경향신문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수학·과학 34% 교육과정 벗어나

배문규 기자 sobbelle@kyunghyang.com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다음날인 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7 대입 전략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입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이준현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2일 서울대 구술고사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교과의 34%가 교과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대 면접이 일반적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되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내용에 근거한 개별 질문이 아닌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라고 주장했다. 과거 특기자전형처럼 '말로 하는 논술고사'나 마찬가지로 이는 것이다. 또한 구술고사 문항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고등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종... 수학 문제 60%가 대학과정
2016-06-22 한겨레

한겨레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종... 수학 문제 60%가 대학과정”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구술고사 문항 분석

전체 28.3%, 수학 61.5%가 대학 과정

일반전형 합격자 일반고 35.9%, 특목고 4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요소인 구술고사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정부 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에 도움 안돼” 70.4%
2016-06-27 교수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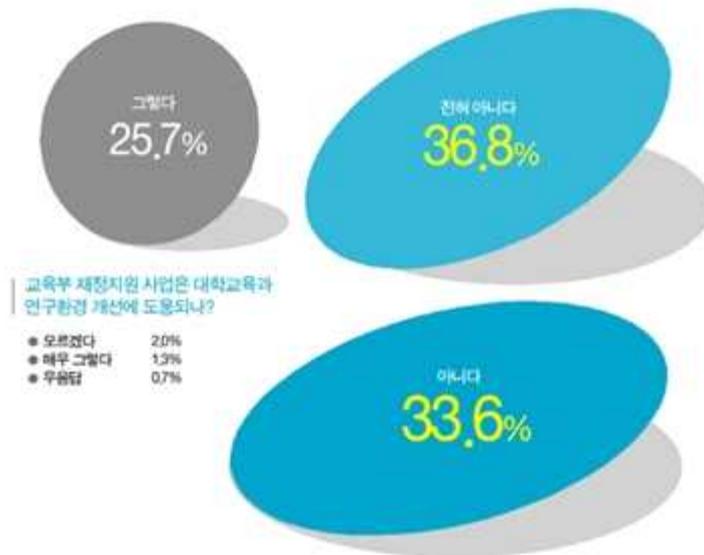
교수신문

정부 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에 도움 안돼” 70.4%

사교련-사격세, 교수 152명 대학구조개혁(평가)정책 설문조사

2016년 06월 27일 (월) 11:05:11

김종근 기자 mong@kyosu.net



“프라임사업, 효과적이지 않다” 56.6%
교육부-대학 ‘돈’으로 맺인 ‘갑을 관계’

▶ 있는 집 애들만... 한국 수학 양극화 OECD 최악수준
2016-06-27 국민일보



시사 > 전체기사

있는 집 애들만... 한국 수학 양극화 OECD 최악수준

입력 : 2016-06-27 17:32 / 수정 : 2016-06-27 23:13

보고서는 “산술 능력은 구직부터 시민사회 참여, 건강에 이르기까지 성인 삶의 광범위한 결과들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며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수학을 배우도록 하는 교육과정 등을 마련해 더 유동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은 학습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사교육 접근이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며 “정규교육과 자기주도학습만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학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종'이라면 "불법이라도 좋다"

2016-06-29 주간동아

주간동아 커버스토리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라이프 · 건강&과학 · 스포츠 · 피플

커버스토리 | 대학을 훑치다

'학종'이라면 "불법이라도 좋다"

유령회사 차려 '학생 CEO' 만들고, 발명·특허 출원도 유행...고액 입시컨설팅 천태만상



6월 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주관의 '학생부종합전형' 설명회 현장. [동아일보]

2015년 11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강남지역 입시컨설팅업체 10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62.5%)이 분당 비용 1만 원을 상회했다. 이는 강남교육지원청이 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분당 5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참고로 입시 단과학원의 수업료는 분당 125원이다.

▶ '저소득층' 학생 위한 선행학습을 특목고까지 이용?... '공교육정상화법' 논란
2016-06-29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회

'저소득층' 학생 위한 선행학습을 특목고까지 이용?... '공교육정상화법' 논란

배문규 기자 sobbe@kyunghyang.com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9일 "교육부 기준대로 10%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다는 빌미로 지정되면 나머지 90% 학생들까지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자사고나 외고도 지정될 가능성이 커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www.kyunghyang.com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웃어라, 수포자!' 발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책을 통해 제시하는 수학에 관한 잘못된 생각 12가지는 △학원에 보냈더니 수학성적이 오르던데요? △수학은 양이 많고 어려운 과목이라 선행학습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초등학교 입학 전 두 자리 계산까지는 미리 해놔야 한다던데요? △스토리텔링 수학을 대비하려면 학원에 가야한다던데요? △초등학교 때 연산 훈련을 많이 해놔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수학은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다던데요? △수학을 잘하면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요? △중학교 수학부터는 부모도 손을 못 댈단면서요? △수학은 속도전이라 공식 암기가 필수라던데요? △고등학교 수학만큼은 선행학습 안하면 안 된다던데요? 수학문제집을 여러 권 풀어야 입시에서 우러나갈까요? △수학을 못해도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던데요? 등이다.

▶서울 유아영어학원 하루 5시간 교습...비용 연 1천만원"
2016-06-29 연합뉴스

2016.08.31 (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강릉 21.6℃

"서울 유아영어학원 하루 5시간 교습...비용 연 1천만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가장 비싼 곳 연 2천200여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의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비가 대학 등록금의 세 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솔로몬반, 면학관...' 성적 따라 자습실도 따로 쓰나요?
2016-06-30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회

'솔로몬반, 면학관...' 성적 따라 자습실도 따로 쓰나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조사결과 전국 14개 교육청에서 여전히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성적 중심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성적 차별 면학실 금지 조례가 시행중인 사도교육청에서조차 성적 우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월 200만원 넘는 영어유치원, 단속 못하는 이유는...
2016-07-04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경제 IT 정치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취업 전체

월 200만원 넘는 영어유치원, 단속 못하는 이유는...

실상은 유치원인데 '학원법' 관리대상...교습비·교습시간 구체적 기준 없어

[그림2]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등록금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비 비교

4년제 대학 등록금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비와의 비교 (단위: 만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취학전 영유아들이 과도한 학습량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가 학습시간과 프로그램, 강사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해야 한다"면서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교습비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고 위화감 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 1만 원과 야자 폐지, 무슨 관계냐고?
2016-07-05 오마이뉴스

최저임금 1만 원과 야자 폐지, 무슨 관계냐고?

[주장] 인간의 기본적인 삶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교육에도 영향 미칠 것



▲ '9시 등교제'를 해도 감이 부족한 이유? 아이들은 피곤하다. 9시 등교제를 해도, 야자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말이다. 결국, 입시경쟁교육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에 따라 선택한 직업이 그 무엇이든 자아존중감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 '1만원 최저임금제'에 그 답이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이다. (<http://www.goodbye.or.kr/>)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련사진보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꼭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이 있으면 전문직의 경우에도 대졸 학력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설정되었을 때 출신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차별받지는 않을 것이다.

▶ 10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고교 과정 벗어나 출제
2016-07-05 한국일보

한국
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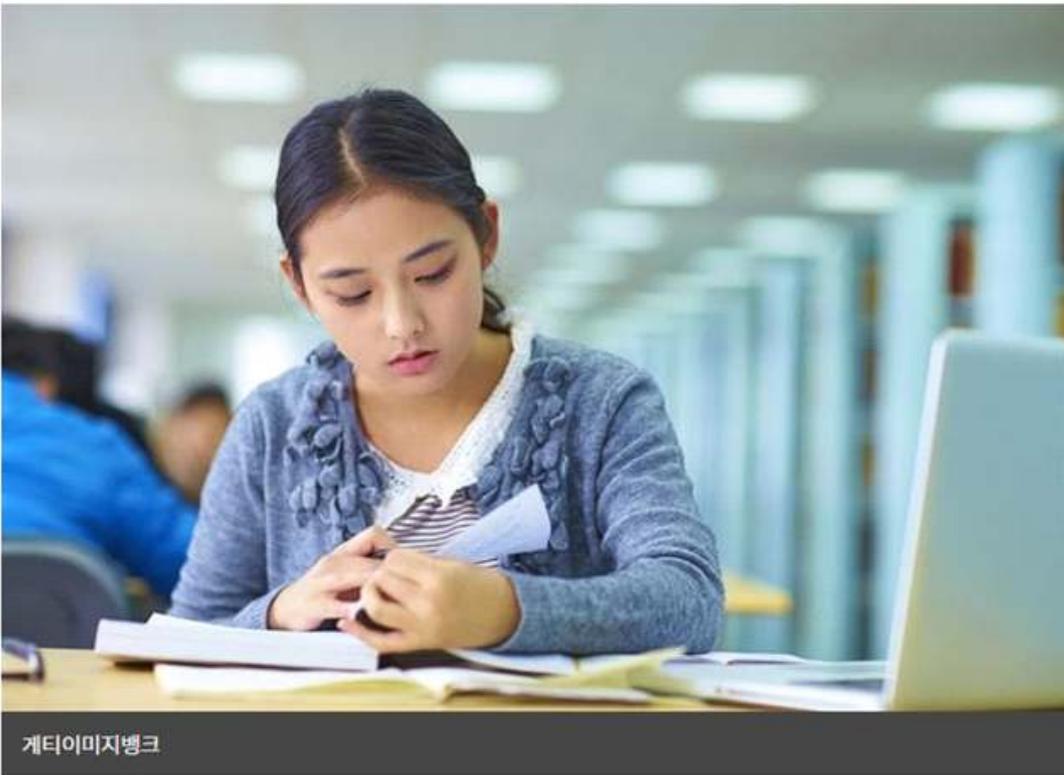
Korea Times | 한국스포츠경제

뉴스 스페셜 이슈/기획 오피니언 멀티미디어 지역



10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고교 과정 벗어나 출제

현직 교사들이 작년 문항 분석
연세대 54% · 이화여대 39% 등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항 출제
대학에서 배우는 개념 나오기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지난해 출제한 자연계 논술 전형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고등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민단체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적발되는 대학들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본 뒤 사실일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자율 지도를 하거나 고교 교육 정상화 사업을 평가할 때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되려면 사회적 합의 필요
2016-07-15 한국대학신문

뉴스
대학정책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되려면 사회적 합의 필요"

사격세 토론회 ...구조개혁법 분석과 대안모색

김소연 기자 | stary@unn.net



▲ 1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종합 대안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민주 "출신학교차별금지법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여야"

2016-07-18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정치

증권 경제 비즈 IT/벤처 정치 사회 부동산 문화/스포츠 헬스 투자 포커스

더민주 "출신학교차별금지법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가 조속히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은 "학부모의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 의식에는 자녀가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출신학교로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능력대로 취업할 수 있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수포자 없애자" '수학 대안교과서' 개발착수
2016-07-19 뉴스1



"수포자 없애자" '수학 대안교과서' 개발착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년까지 중학교 전 과정 대안교과서 제작"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7-19 16:45:10 송고 | 2016-07-19 17:43:10 최종수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 국민운동 출범식'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뉴스1DB© News1

한 교육시민단체가 주입식 설명으로 수학 포기자(수포자)를 양산하는 현 교과서를 대체할 '수학 대안교과서' 제작에 착수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수포자 없는 수학 대안교과서 제작 착수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중학교 전 과정에 대한 수학 대안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계 "이대 사태 계기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재점검 해 봐야"
2016-08-07 연합뉴스

2016.08.31 (수)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강릉 21.6℃

교육계 "이대 사태 계기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재점검 해 봐야"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협회"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6월 대학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7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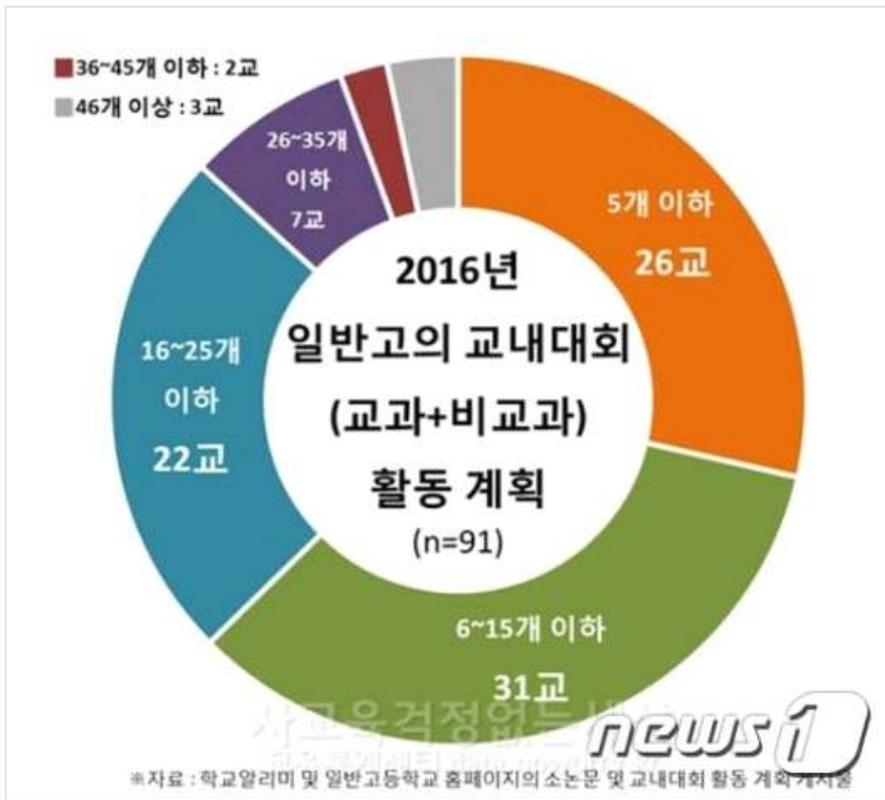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돈을 미끼로 대학을 길들이는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며 "실제 정부가 목적을 정해 대학에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선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 '학종' 대비 교내 경시대회, 강남·전북 격차 8.7배
 2016-08-11 뉴스1



'학종' 대비 교내 경시대회, 강남·전북 격차 8.7배

67개 교내대회 개최하는 학교도...7곳은 운영계획 없어



2016년 9개 지역 일반고 교내대회 운영 개수 분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News1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전국 9개 지역 91개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내대회, 소논문(Research&Education·R&E) 등 비교과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학생부종합전형 늘수록 불공정성 우려도 확산
2016-08-17 부산일보

학생부종합전형 늘수록 불공정성 우려도 확산

사회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입력 : 2016-08-16 [19:52:38] | 수정 : 2016-08-18 [14:32:08] | 게재 : 2016-08-17 (20면)



▲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 지역·학교별 여건 차이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의실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토론회 모습,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 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제동
2016-08-19 대학저널

🕒 편집 : 201691 목 1338



Dhnews Search 검색 자세히

"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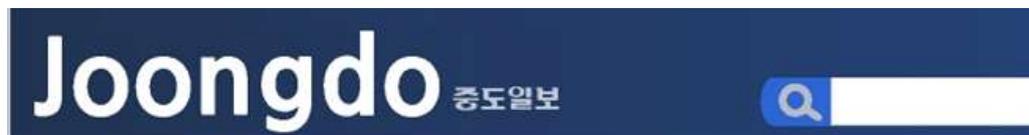
인권위, 시·도교육청에 감독 강화 요청...교육계, 환영의 목소리



▶ 좌측부터 A학원의 명문대 합격자 명단, B학원의 16년간 특목고 합격자 누적 명단, C학원의 기말고사 성적우수자 명단(출처: 사교육걱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특정대학 진학 홍보를 넘어 중고등학교 진학과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 석차나 성적 등 내신정보까지 임의로 가공, 홍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즉시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현정부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질만 하락
2016-08-21 중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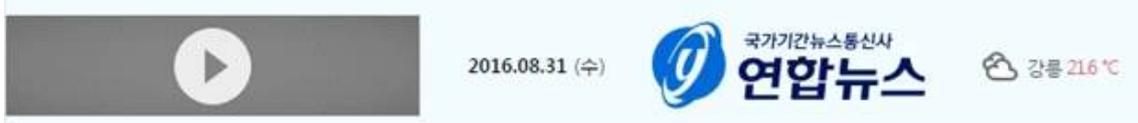


현정부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질만 하락

2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분석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대학을 일정한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정해진 감축률에 맞춰 정원을 감축하는 현정부의 정원감축 방식은 모든 대학을 일일이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전임교원 30%를 줄이지 않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1조2844억원으로 2016년 한해 정부가 프라임사업, CK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사용한 1조5000억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대신 전임교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작용 많은 현재의 등급별 정원감축보다 한결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 새 초등 1~2 수학교과서, 페이지 줄어 더 어려워져
2016-08-23 연합뉴스



"새 초등 1~2 수학교과서, 페이지 줄어 더 어려워져"

송고시간 | 2016/08/23 10:54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선행학습 여전히 유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개발된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교과서 내용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게 기술되는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 분석에 따르면 우선 1, 2학년 새 수학교과서에 포함된 교육과정 분량이 기존 교과서에 비해 6.5%밖에 줄지 않았으나 페이지 분량은 30% 이상, 특히 수학익힘책은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더 어려워진 초등 1·2 수학
2016-08-23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회

더 어려워진 초등 1·2 수학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 한 자릿수 덧셈·뺄셈 생략하고 바로 두 자리 덧셈·뺄셈 교육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의 교육과정 축소분은 6.5%였는데 현장검토본 '교과서'의 페이지 분량은 30% 이상, '익힘책'은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기존의 2009 개정 교과서에서 1학년 1학기 교과서는 171쪽이었는데 이번 현장검토본은 124쪽으로 줄었으며, 익힘책은 140쪽에서 77쪽으로 줄었다. 2학년 1학기 교과서도 90쪽, 익힘책은 40쪽이 줄었다. 페이지 분량이 줄면서 각 단원 분량이 줄었고, 소단원 내용도 축약되거나 생략됐다. 기존 2009 개정 교과서에선 0의 개념을 두 개 소단원에서 가르쳤는데, 이번 현장검토본은 하나로 줄었다. 1학년 1학기에 한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생략하고, 2학년 1학기에 바로 두 자리 덧셈과 뺄셈을 가르친다. 교육과정은 그대로 둔 채 페이지 수만 무리하게 줄이다 보니 설명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어 시간에 한글 자음 배우는데, 수학 시간엔 문장쓰기?
2016-08-23 한겨레

한겨레

국어 시간에 한글 자음 배우는데, 수학 시간엔 문장쓰기?

내년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서

한글 선행 교육 전제로 구성

일본 수학 교과서는 문장 없어

사교육걱정 “대폭 수정해야”



국어 교과서에서 자음과 모음 학습하는 시기에 배우는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문장을 쓰도록 유도하는 문항이 배치돼 있다. 내년 초등 1학년 사용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교과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는 2015년 9월에 확정 고시된 후, 개발 일정 상 2018년도에 첫 적용됨이 마땅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적용을 목표로 고시가 되자마자 지난해 10월 편찬기관과 집필진이 선정되고 올해 2월에 현장검토본이 완성돼 교과서 연구 개발의 충실성이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에 맞게 수학 교과서를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수학 선행 사교육과 수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불법 교습행위 실태 심각
2016-08-24 베이비뉴스



통합검색 ▾

검색

베이비뉴스TV | 독감 무료접종 | 유모차는 가고 싶다 | 저출산 대책

"유아대상 영어학원 불법 교습행위 실태 심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명확한 지침 마련해야"

기사본문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24 11:35:38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바른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관련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단속할 것을 24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70개를 조사한 결과, 57.1%에 해당하는 40곳이 교습과목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들 학원의 교습과목을 살펴보면 예체능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6곳, 과학이 31곳, 심지어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임에도 한국어(국어, 한글)를 가르치는 곳도 70곳 중 10곳이나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는 해당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본 단체의 수차례 의견서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그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실용외국어 습득을 위한 학원이 예체능, 사회, 과학, 수학은 물론 누리과정과 국어(한글)까지 가르치고 있는 실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